

『창세기 30회: 창세기 27:1-29』

1.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하다(1-5)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은 모세(신 34:7)와 달리 이삭은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흐려졌다고 말할 때 다시 사용됩니다(삼상 3:2). 이삭의 영적인 침체, 잃어버린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참고: 창세기 48:10에서 야곱의 시력이 흐려졌다고 할 때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곱은 시력을 점차 잃고 있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오히려 더욱 예리해진 상태였습니다.)¹⁾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25:23)라는 신탁을 알면서도, 장자에서에게 축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삭은 에서를 부르고 에서는 이삭에게 호기롭게 대답합니다.

2절,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읽으면 상당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은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과 말투로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이삭은 20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은 이 장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릅니다.²⁾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사라진 곳에는 대개 욕심이 자리 잡기 마련이고, 욕심이 이끄는 삶은 편견과 거짓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시기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 삶에서 참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3절-4절, 영적 감각이 무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음식에 관한 감각은 발달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요구합니다. 이삭은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이 열망은 에서가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과 상응합니다.³⁾ 이 모습은 에서가 한 그릇 팔죽을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실을 상기시킵니다.⁴⁾ 본문에서 이삭은 영혼을 다 바쳐서 축복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4, 19, 25, 31절). 다시

1)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268.

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8.

3)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547.

말해, 이삭은 전심을 다해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⁵⁾ 이삭의 전심이 담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식사를 준비해 와야 합니다.

이삭과 에서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먹을 것과 교환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이 구절은 히브리어 구성으로 볼 때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연처럼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들었더니: 분사)⁶⁾. 한편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들로 나갔습니다.

지금 리브가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의중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과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니,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여 일단 야곱을 축복받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만 보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는 이때 야곱을 축복받게 하겠다는 욕망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립니다. 리브가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2.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삭을 속이도록 부추기다(5-17)

6절-7절, 5절에서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6절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에서와 야곱을 향한 부모의 편애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묘사합니다.⁷⁾ 이삭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마음은 왜곡된 결정으로 이어지고, 왜곡된 결정은 공동체에 큰 아픔을 가져옵니다. 인간인 이상 완전히 공의로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최대한 결심의 순간에서 공의롭게 판단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

4)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Michigan: Zondervan, 1992), 김동진·정충하 역,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서울: 크리스찬서적, 2005), 359.

5)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705.

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69.

7)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48.

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 1:17)

편향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상황이 긴급하다고 말합니다.⁸⁾ 리브가의 독촉은 지금 당장 리브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축복받을 기회를 잃는다는 말로 야곱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결정을 속전속결로 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시간의 문제가 상당히 크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문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신중합니다. 성경에서 신중함은 개인의 특성이 아니고, 훈련해야 할 성품 중 하나입니다.⁹⁾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전혀 신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떠밀려 결정하는 중입니다.

8절-10절,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제’ 내 아들이 너는 내가 명령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거의 행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¹⁰⁾ 리브가의 명령은 “염소 떼로 가라!” “가져와라! 아기 암 염소 두 마리를”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 염소 떼로 가서 염소를 가져오면, 리브가는 이사를 위해서 이사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것입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사를 먹인 후,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12절, 야곱은 리브가의 계획을 듣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헨”(그만,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야곱이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¹¹⁾ 야곱이 리브가의 계획에 반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제대로 속이지 못하면, 야곱은 축복은커녕 저주만 받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이 옳은지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합니다.¹²⁾

13절,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내 아들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

8)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72.

9)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디모데후서 4장 5절)

1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72.

11)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49.

1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73.

지 성경은 리브가를 어머니로 부르지 않았었는데, 13절에서 성경은 ‘어머니’라고 기술합니다. 즉,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야곱이 축복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자신은 모든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겠다고 제안하는 최초의 사람을 어머니로 제시합니다.¹³⁾ 흥미롭게도 리브가는 야곱이 일단 염소를 잡아오면, 자신이 야곱에게 염소 가죽과 형의 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야곱이 자신을 신뢰하고 염소를 잡아오길 바랍니다.¹⁴⁾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이야기를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이 자식을 괴롭게 만들고,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히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사용 되지 않으면, 집착과 왜곡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4절, 야곱은 이삭을 속일 방법을 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단호함에 순종하여서 가서, 취해서, 가져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대로(9절) 행동합니다.¹⁵⁾ 이제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삭을 속일 것이고, 리브가를 저주받게 만들지도 모르고, 에서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야곱은 자신만 행복해지면 괜찮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무서운 인간입니다.

15절-17절, 리브가는 집에 있던 그녀의 큰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해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에 입히고, 목에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었습니다.

3. 야곱이 이삭을 속이다(27:18-29)

18절, 야곱은 이삭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일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만큼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보라’라는 단어로 야곱이 겪는 위기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을 듣고 “누구나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질문합니다. 이삭은 목소리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려 하는 중입니다.¹⁶⁾

13)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73.

14)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384.

1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50.

16)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50.

19절-20절, 야곱은 “당신의 큰 아들 에서입니다”라고 이삭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¹⁷⁾ 이에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평소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¹⁸⁾ 이는 상당히 참담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종종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지 않고 삶을 정렬하지 못합니다.

21절-23절,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만져봄으로써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에서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향한 의심을 드러내기 전까지 야곱은 적지 않은 말을 하지만, 이후 야곱은 한마디밖에 하지 않습니다.¹⁹⁾ 야곱은 이삭의 의심에 상당히 위축되었고,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야곱의 정체를 결국 확인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4절-29절, 이삭은 에서가 맞다고 확신하고, 야곱과 식사하고 마십니다. 이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축복은 다산과 자기 형제와 열방의 주가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성됩니다.²⁰⁾ 결국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들을 어둡게 만들고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조작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의 결국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 계략의 결과를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의 사악한 방해로 인해 정말 큰 것을 잃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며, 그에게 수치가 아니라 명예를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주어지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리브가는 아들을 잃었고, 야곱은 평생 도망쳤다. 리브가는 평

1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277.

18) Kenneth Mathews, 『창세기 2』, 551.

1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387

20)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708.

생 야곱을 보지 못한다. 야곱은 가정의 모든 평안함과 재산을 잃는다. 그는 오직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도망쳐야 했다. 그는 자기 힘만으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내던져진 것이다. 그의 삶은 그의 고백대로 나의 연수는 얼마 못되고 험악한 세월이었다.”(Book of Genesis, 274, Dods)

우리는 거짓말하거나, 왜곡된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에게는 적지 않은 돌이킴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리브가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의 말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거짓을 택했고, 그것이 야곱의 악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보겠지만,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밧단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훈련시키심으로써 악한 야곱의 삶에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숙할 때 욕망을 따라 행동하고,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악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